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탄력'

도시개발구역지정 · 계획수립 완료… 2000세대 계획도시 조정

완주군청사 주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완주군의 명품 도시 개발사업이 탄력 받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이 계획된 완주군 용진읍 군청사 주변은 GB해제지역으로 그동안 녹지지역으로 관리됐었다.

이후 지난 5월 지구단위구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에 신청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이 완료됐다.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은 완주군청사 주변 44만7,000평방미터에 행정 · 업무 · 문화 · 주거 · 상업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완주군청사가 현 위치로 이전이 결정된 지난 2008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이 계획된 완주군 용진읍 군청사 주변은 GB해제지역으로 그동안 녹지지역으로 관리됐었다.

완주군은 명품도시로 계획 중인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이 완료되면 2,000세대 4,600여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가 조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변공원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의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결정됨에 따라, 이후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조기 착수해 2019년 완료한다는 목표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역 메아리

완주군 지역주민 · 근로자 별빛노래자랑 개최

완주군이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별빛노래자랑을 연다.

12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봉동읍 둔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지역주민, 근로자 500여명을 초청해 별빛노래자랑을 연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지역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화(290-3345),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방문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고, 예심은 오는 23일 전라북도근로자복지관 대회실에서 개최된다.

초청가수로는 '동행'과 '풀잎사랑'으로 유명한 최성수와 최설매, 연예인협회 소속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별빛노래자랑에서는 완주산단진흥회와 환경협의회 등에서 푸짐한 경품을 마련하고 노래자랑에 참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초청 주민들에게도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청하중에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가져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12일 청하면에 위치한 청하중학교를 찾아가 전학년(20여명)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교육정책 예상 방향 및 그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청하중에서 개최한 교육설명회는 최고의 입시전문가인 장욱민 소장(명인에듀 입시전략연구소)을 모시고 현재 중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정책에 따른 대학입시 전망을 알아보고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교과목 관리법 및 진로 목표에 따른 독서, 봉사활동 방향 제시등으로 진행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종자기능사 20명 합격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종자생산 단기과정 교육생 20명이 국가기술자격인 '종자기능사'에 최종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제시는 '종자산업 특구지정에 맞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종자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총 20회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종자생산, 작물, 육종 3과목을 평가하는 이론시험과 종자 · 병해충 감별, 병충해방제, 작물육종, 토양 소독 등의 실기시험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0명이 종자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시로 찾아가는 김제들밥'

시, 지평선 햅쌀밥 등 향토식문화 홍보 앞장

김제시 (시장 이건식)는 농업경영체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 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로 강소농 1,000명을 목표로 5개년간 육성해 왔다.

중소가족농 중심의 강소농은 기본 · 심화 · 후속교육을 통해 핵심철학인 비품고가역을 실천하는데 촛점을 두고, 그 결과로 4개의 자율모임체(강소농 1번지, 행복을 주는 사람들, 강소농한마당, 신명나는 4기)가 조직되었다.

'도시로 찾아가는 김제들밥' 행사는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서울 혁파크 맛동에서 강소농 1번지(회장 조성천) 13명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김제시의 역사와 향토 식문화, 농산물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와 이야기농업연구소(안병권 소장)가 주최 · 주관하는 식생활교육 프로젝트이며 도시민에게 가치를 나누고 다양한 밥상을 짓는 커뮤니티 키친(가나다 밥상) 1호에 김제시가 첫 테이프를 끊는다 는 것에 그 의미와 가치를 둔다.

소개되는 김제들밥 메뉴는 김제 지평선 햅쌀밥, 원평 돼지머릿고기, 개떡, 동록개막걸리, 사과즙으로 단순하지만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생산되고 재배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준비하였고 이미 서울시민 대상 선착순으로 100명이 모집 완료되었다. 이 행사는 네이버(www.naver.com)〉맛동 가나다밥상,위즈돔(www.wisdo.me)〉맛동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산단 조성 고향잃은 시민위한 시설 마련을"

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망향관 건립해야"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2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 날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모악산 캠핑파크 등 주요사업장 4개소의 현장방문이 진행되었고 2일차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차인 13일부터 16일까지이며 6일차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두기 의원(다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산저수지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시민들을 위한 망향관 건립을 건의하였다.

박 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이주민을 위한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것이 차후 지역의 대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중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황 근무에 임해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김제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이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육교 재가설 공사 등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김제시가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로부터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및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호남선 철도 횡단 과선교로서 코레일열차가 1일 26회 운행중인 김제육교는 1985년에 건설되어 지난 2011년에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판정받아 재가설이 시급하였으나 총사업비 240억으로 그간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비 확보가 절실하여 이건식 시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등 중앙부처에 수년간 수차례 예산을 요청한 사업이다.

지난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6억7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번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2층 건물로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후설계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3층으로 증축하여 소강당,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이중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018년에 완공될것으로 보인다.

위 두건의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것은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종회 국회의원, 김제지역 출신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김제시로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장 운영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완주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장을 운영한다.

12일 완주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적정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면적은 821.21㎢ 중 도시지역,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19.18㎢를 제외한 502.03㎢이다.

완주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900여명의 수렵인이 완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수렵기간 내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나 밝은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